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 도 자 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2013년 7월 4일(목)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산업부 활용촉진과 신동준 과장(2110-4511), 김덕기 사무관(2110-4513)

'13년 FTA활용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 개강

- 다양한 무역경력 보유자들 몰려, 높은 경쟁률 기록(3.13 : 1) -

□ '13년 제1기 FTA활용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 개강 및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7.4일, 한국FTA산업협회를 통해 무역관련 퇴직인력을 FTA활용 전문컨설턴트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강식을 가졌음

* '13. 7. 4(목) 11:20-13:30, 잠실 MBC아카데미빌딩(7층), 60여명 참석

○ 권평오 무역투자실장은 개강 축사를 통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중국 긴축 우려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무역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그간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무역강국으로 이끈 주역인 교육생들이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제2의 경제부흥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함

- 개강 이후에는 이미 양성된 컨설턴트와 함께 이들이 현장에서 체험한 중소기업의 FTA활용애로 요인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도 가졌음

□ 다양한 무역경력 보유자들이 다수 몰려 높은 관심 보여

○ 금번 '13년 제1기 교육생을 선발한 결과, 선발예정인원(40명) 대비 약 3배(125명)의 신청자가 몰려 동 과정에 높은 관심을 보임

- 교육생을 경력별로 분류해 보면 무역업무종사 경험자(95.3%), 50대(65.1%)가 대부분을 차지함

【경력별 선발현황 : 총 43명】

구분	업무경력		업종 및 기능									
	무역분야 임직원	전문직	마케팅/해외영업	자동차/부품	섬유/직물	석유화학	전기/전자	기계/금속	국제금융	유통/물류	농식품	전문직
명수	41	2	24	3	3	3	3	2	1	2	1	1
%	95.3	4.7	55.7	7.0	7.0	7.0	7.0	4.7	2.3	4.7	2.3	2.3

* (연 령 별) : 50대 28명(65.1%), 40대 2명(4.7%), 60대이상 13명(30.2%)
* (무역경험) : 20년이상 19명(44.1%), 15~20년 13명(30.2%), 15년미만 11명(25.5%)

○ 금년도에는 전년보다 교육시간을 늘리고(120→150시간) 분야·업종별 FTA전문가를 3회에 걸쳐 총 120명을 양성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오는 7월말과 10월중에 교육생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임
- 교육은 업종·산업별 FTA를 이해하고 중소기업의 수익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진행*될 계획임

* 총 150시간(7.2주, 주3일(월, 수, 금), 일 7시간)

□ 시니어 일자리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지속 추진

○ 내년('14년)부터는 중소기업들이 은퇴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부 등의 시니어 일자리창출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임

○ 정부 관계자는 "최근 중소기업들은 FTA 활용과 관련 업종별, 분야별 전문 맞춤형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양성된 컨설턴트들의 무역경험과 FTA지식이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라고 밝힘

참고 : 1. 무역관련 퇴직인력 'FTA활용 전문컨설턴트' 양성교육 개요
2. 특이경력 교육생 사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활용촉진과 김덕기 사무관(☎ 02-2110-45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무역관련 은퇴인력 컨설턴트 양성교육 개요

□ 사업 개요

○ 무역관련 퇴직인력 등을 대상으로 FTA 단계별 종합교육을 실시하여 **업종, 국가 등 분야별 FTA활용 컨설턴트 양성**

- **(교육대상)** 무역경험 **10년이상의 퇴직 임직원**, 무역관련 전문가 등

* 150시간(집합교육 120시간 + 현장실습 30시간), 약 7주, 주 3일, 1일 7시간

- **(교육내용)** 단계별*로 **국제경제 트렌드, FTA원산지 활용, FTA 마케팅 전략** 등을 포괄하는 커리큘럼 구성

* FTA이해 단계 → 대응 단계 → 활용 단계 → 혁신 단계 → 개별활동 단계

- **(추진계획) 금년도 120명** 양성 ('12년 84명 기양성)

□ 추진현황 및 계획

○ **'12년 추진현황**

- **(수행교육기관)** MBC아카데미 · 한국FTA산업협회 컨소시엄
- **(교육기간)** 제1기 : 8.27~10.15, 제2기 : 10.18~11.27
- **(수료생배출)** 업종별 · 분야별 **전문가 84명** 교육(제1기 42명, 제2기 42명)

구분	섬유/화학	전기/전자	가전소물	기계/금속	자동차/부품	통신	건설, 프랜트	농축식품	금융 · 회계 · 관세 · 법률	기타분야
명수	17	15	7	7	5	5	4	7	10	8
%	20.2	17.8	8.2	8.2	5.8	5.8	4.6	8.2	11.9	9.4

○ **(활용방안)** FTA 컨설팅 등을 통해 현장을 경험한 후, 기업 **전문 컨설턴트, 전문강사, 수출기업 상담 · 자문역** 등 활동

【'12년 양성컨설턴트 활동 현황】

구분	FTA컨설턴트 (전문강사 병행)	기업취업 (자영업)	변호사 등 전문직	비활동	합계
인원	51명 (10명)	20명 (5명)	5	8	84
%	60.7%	23.8%	6.0%	9.5%	100.0

○ **(향후일정)** '13년 3회(제3기~제5기) 교육실시: '13 .7.4~12. 6

참고 2 특이경력 교육생 사례

[사례 1]

□ '선박 및 발전소 플랜트 부문의 FTA 전문컨설턴트'를 꿈꾸는 이모(60세) 씨

○ 이모씨는 주)두산중공업에서 주로 외자재 수입을, 주)두산엔진에서 선박엔진 및 발전소 수주공사에 관련된 업무 경력과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해외 현장 경험을 보유한 지원자임

○ 이모씨는 고려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주)두산중공업에 입사하여 1979~1999년까지 20년 이상을 자재구매부와 계약관리부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주)두산엔진으로 자리를 옮겨 '12.6월까지 선박엔진과 디젤발전소 수주 및 건설과 관련된 국내외 영업을 총괄하였음

○ 지원하게 된 동기로 '플랜트영업 전문가로서 30년 이상의 무역경험과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하여 FTA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무역증대에 일조하고 싶은 것에 있다'고 함

○ 최근 중동과 아시아 등 FTA 시장의 플랜트 건설 붐에 발맞추어 앞으로 우리 기업의 FTA 체결국에서 자동차, 조선, 발전 등 해외 대형 복합 플랜트 수주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례 2]

□ 30년 이상을 화학제품 수출입에 전념해 온 백 모(58세) 씨

○ 백모씨는 1983년 성균관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후, SK네트워크에 입사하여 직물수출을 담당한 후, 30년 동안 주로 화학제품의 수출입 업무를 맡았으며, 사우디, 싱가포르, 중국 등지에서 해외근무를 경험하였음

○ 그 이외에 SK 중국HQ장 전무이사로서 중국사업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이후에는 기업문화 부문장으로서 관리총괄의 업무를 맡은 바 있음

○ 퇴직한 후에도 해외 마케팅 전문위원으로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FTA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중공업 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힘

○ 따라서, 백모씨와 같이 화학제품산업의 해외마케팅 분야의 FTA 활용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석유화학관련 업종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한·중 FTA에 대한 대비, 최근 미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셰일가스 개발붐에 대응하여 새로운 산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례 3]

□ 30년 이상 섬유산업에 종사한 안 모(63세) 씨

○ 안모씨는 1977년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코오롱의 원단사업본부에 입사하여 섬유수출 업무를 맡은 후, 원단사업본부장으로서 미국지사에서 원단판매, 대구에서 원사판매의 일에 전념하였음. 2002년에는 코오롱TTA 대표이사직에 올라 섬유사업본부의 총책임을 맡았으며, '05년부터 2012년까지 유비텍(주) 대표이사를 맡아 인공피혁 판매 일에 종사하였음

○ 코오롱 재직시 거의 전기간을 원사와 원단 판매에 종사함으로써 한국의 섬유 및 원단업체의 현황과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해외 바이어들이 원하는 바를 조율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경력자임

○ 코오롱을 퇴사한 후에도 유비텍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인공피혁제품 생산과 판매 활동 경험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기술적, 생산적 문제점을 자문할 수 있는 역량을 쌓았음

○ 따라서 안모씨와 같은 섬유산업계의 히든 플레이어들이 앞으로 한•미 및 한•EU FTA의 섬유와 관계된 원산지 협정문을 잘 파악하여 최근의 한국 디자인 및 한국섬유에 열광하는 한류 붐을 타고 세계 바이어를 상대로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컨설턴트로 기대됨

[사례 4]

□ 자동차 분야에 35년 이상 종사해 온 신 모(60세) 씨

○ 신모씨는 1979년 건국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78년부터 2000년까지 25년동안 현대모비스의 수출부와 중국법인에서 해외근무에 종사하였으며,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현대다이모스에서 업무총괄과 해외영업 업무를 보았고, 2006년에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을 수료한 이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장으로서 일하다 퇴직하였음

○ 신모씨는 이번의 교육과정 신청을 통해 자동차 수출업무와 해외근무도 경험을 해본 자동차 수출전문가로서 FTA 활용 수출입지원센터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함

○ 현재 한•EU FTA 발효 3주년, 한•미 FTA 1주년을 지나면서 FTA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호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미국과 EU간의 TTIP라는 다자FTA 추진으로 인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임

○ 이러한 난관에 부딪힌 한국 자동차 수출이 틈새시장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제2도약의 발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마련할 수 있는 자동차 전문가로서 역할이 기대됨